

1. 머리말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교육에서 전산 기반 교육 방법이 개발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과 연구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도 온라인 한국어 교육 등에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새로운 전산 기반 한국어 교육 방법들이 대만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이루어지는지 그 특징을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산 기반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온라인 교육이다. 영어를 중심으로 많은 교수법과 학습 내용(콘텐츠) 구성 방법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논의와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웹기반 교육의 특징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자 말뭉치(learner's corpus) 구축을 통한 심도 있는 언어 교육 이론 연구와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전산 기반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분야 또한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관련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연구 성과를 찾기 힘들다.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구직 등의 실질적인 이유 등으로 점점 그 열기가 더해 가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는 외국 중에서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3 번째로 응시자가 많다. 그리고 시간 등의 이유로 직접 한국어를 배우러 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은 아직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관련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대만에서도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는 학습자 말뭉치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 부분은 한국 및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나 기타 전산 기반 한국어 교육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어권 화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현황을, 학습 자료의 구성(콘텐츠)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대해 정리하고 그 외 전산 기반 교육에서의 과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대만의 전산 기반 외국어 교육

2.1. 온라인 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아 대만에서도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중시하는 특성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외국어 교육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특히 각 지역별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여 외국어 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대만 북부 지역에서는 국립정치대학이 외국어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정치대학에는 정부지원 프로젝트로서 ‘북부지역 대학 외국어 센터’(北區大學外文中心)를 설치하여 23 종의 외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이미 원거리 교육용 외국어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기능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수요가 증대되는 외국어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웹 기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그림 1) 대만 북부 지역 외국어 센터 홈페이지

2.2. 학습자 말뭉치 구축

언어 이론 연구에서 실제 언어 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말뭉치 언어학의 특징과 장점은 이제 꽤 알려진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실제적 사용 양상을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말뭉치의 표본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나라들과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목적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각 기관들이 다양하게 구축해 온 말뭉치들이 있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한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서 국가 표준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들에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상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장르와 분량이 고려되어 있다. 대만과 중국에서도 중국어 말뭉치는 이미 꽤 구축되었다. 각 나라의 말뭉치 구축 현황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그런데 제 2언어로서의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오류 연구나 교수법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 말뭉치는 영어권에서는 이미 많이 구축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학습자 말뭉치는 찾기 어렵다. 일부 연구자들이 소규모의 자료들을 텍스트 파일 자체만을 활용해 일부 학습자 오류를

연구한 사례는 있으나, 대규모의 체계적인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한 연구 사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른 다양성과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다양성과 특징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가 있다면, 좀 더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학습자 오류 분석 및 한국어 화자들과의 비교나 모국어와의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대만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서 외국어 교육의 최고 수준인 국립정치대학교 외국어대학에서 학습자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가 수행 중에 있다.

3 전산 기반 한국어 교육

3.1. 이미 구축된 온라인 교육

현재까지 대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곳은 앞서 언급한 '복부 대학 외국어 센터'에서 구축한 원격지 한국어 학습 자료뿐이다. 대만 현지 교원의 중국어 설명과 한국인 교원의 발음이 포함된 총 12 과의 초급 한국어 회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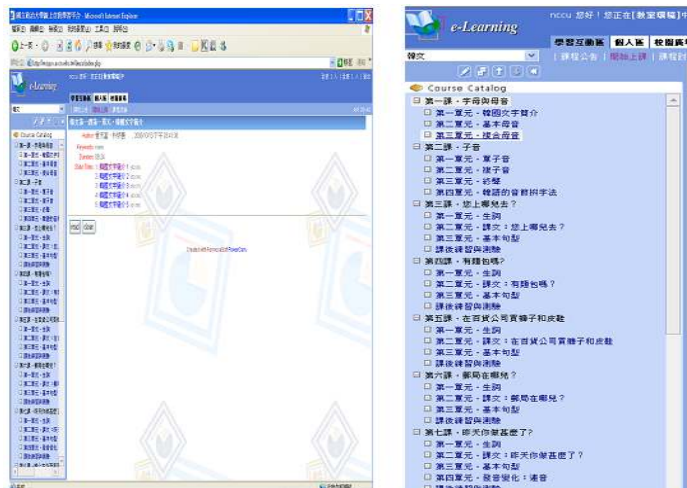


그림 2) 원격 강의 사이트와 목차 부분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학습자가 원격 외국어 강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한국어를 선택하면 브라우저 왼쪽에 목차가 제시된다. 1 과와 2 과는 한국어 자모와 철자법에 대한 설명이고

3 과부터는 기초 회화 내용으로서 한국 고려대학 회화 교재를 바탕으로 교안을 만들었다. 각 과에는 어휘 부분과 본문, 그리고 기본 문형을 중심으로 한 어법 설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의 강의 형식의 내용만 볼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시스템이다.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질의답변 형식이나 피드백의 기능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왼쪽 목차 부분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내용의 원격강의 화면이 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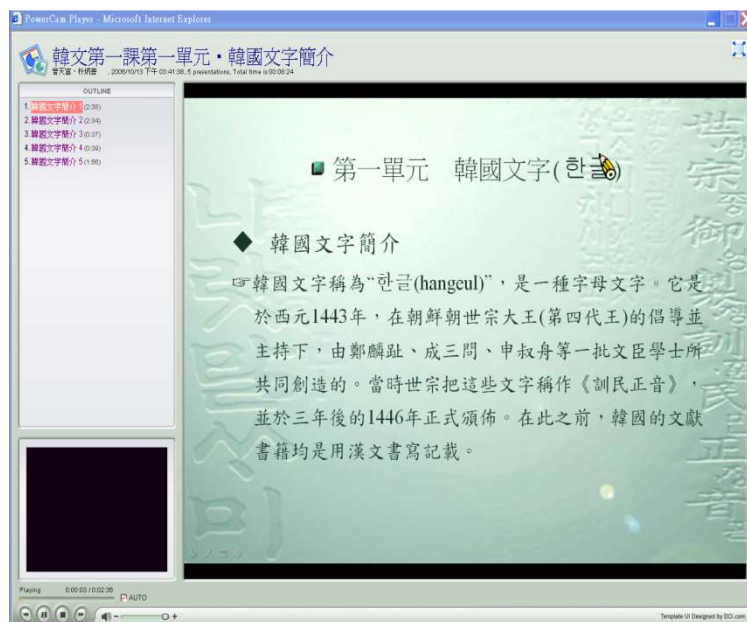


그림 3) 원격 한국어 강의 본문 예

그림 3)은 원격강의 창이다. 왼쪽 하단의 검은 부분은 실제 웹상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교수의 영상이 나온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유사하게 자료를 보면서 교수의 음성 설명을 듣게 된다. 물론 설명은 대만 현지 교수의 중국어 설명이고, 설명을 할 때에는 대만 학습자의 환경을 고려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현지인 교수와 함께 한국인 교수의 발음으로 본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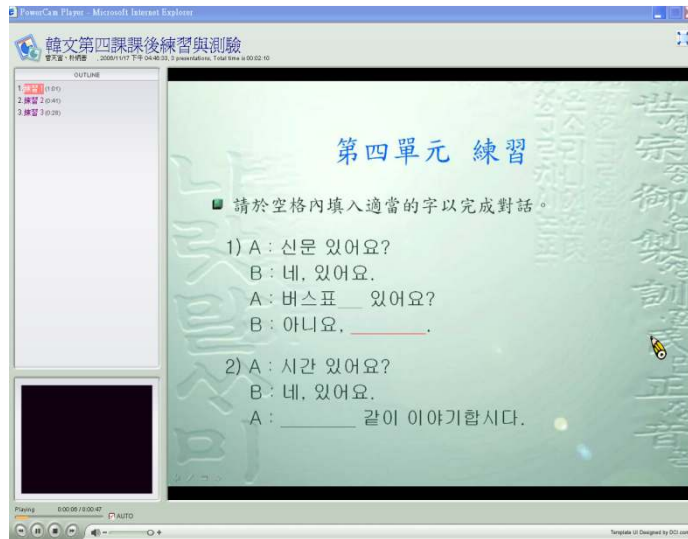


그림 4) 원격 한국어 강의 연습문제 예

그림 4)는 3 과부터 마지막 부분에 첨가한 연습문제 부분이다. 대만인 교수의 문제 설명과 한국인 교수의 발음으로 빈칸 이외의 부분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피드백이 가능하거나 웹상에서 바로 자기가 쓴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기능이 없다. 후에 기술하는 발전된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을 개선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3.2. 현재 개발 중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2 종의 언어는 단순한 방법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비교적 수요가 많은 제 2 외국어인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터키어, 러시아어는 좀 더 개선된 웹 기반 방식으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온라인 교육은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스템과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온라인상에 구현할 방식과 내용 구성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림 5) 현재 구축 중인 온라인 한국어 교육 화면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은 현재 구축 중인 온라인 한국어 화면이다. 앞서 그림 3)에서 보인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기존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의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구축 중인 것은 학습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존의 것에 있던 음성 설명이 없는 대신 발음 영역이나 본문 영역에 들어가면 각 내용별 영상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6) 자모음 설명 부분

그림 6)은 어휘발음 영역에서 개별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의 영상 보조 자료의 예이다. 현재 본문 내용도 동영상을 제작하여 생생한 교육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메뉴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화면의 전체적인 틀도 통일성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메뉴화하여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작 중에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좀 더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영상을 포함한 설명 및 자가 테스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더 관심을 갖는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여 순서를 정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글 자모의 필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배경 사진 또는 삽화를 삽입하여 시각적 면에서도 기존 교육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테스트 부분에서 Hot potatoe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도구 개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습자 말뭉치는 외국어 교습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학습 외국어의 모국어 화자 말뭉치와의 비교를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국적이나 학습 정도 및 각종 사회언어학적 정보가 필수적으로 첨가되어 구축된다.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포함한 텍스트가, 원형 정보가 있는 상태로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검색어를 중심으로 용례를 보여주는 용례추출기가 있다. 좀 더 대규모로 엄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과 통계처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간단한 용례추출기만이 개발된 상태이지만, 한국에서 이미 개발한 각종 말뭉치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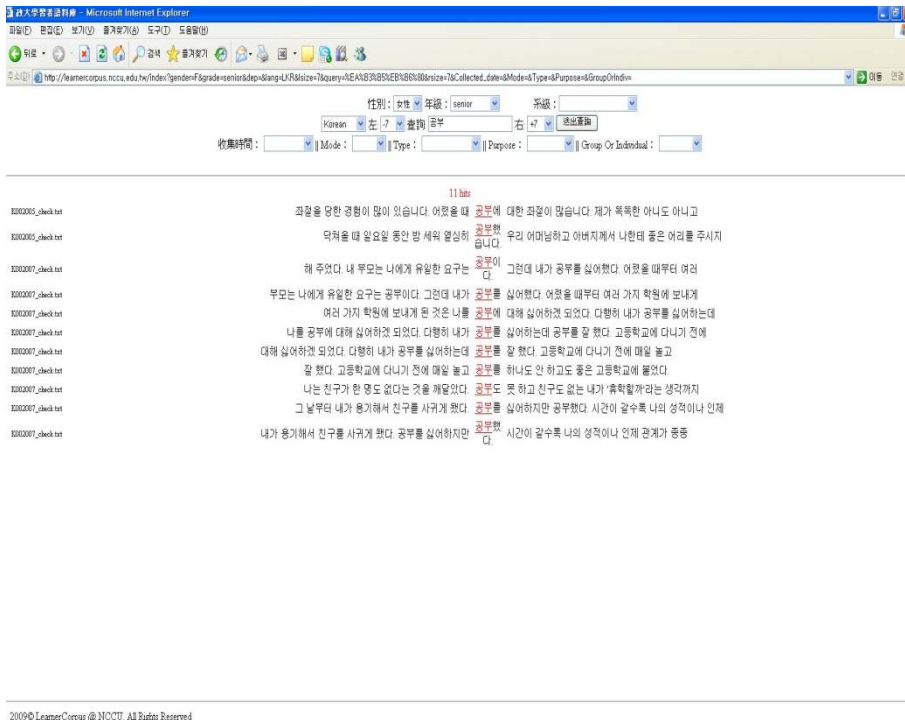


그림 7) 정치대 학습자 말뭉치 용례 추출기 예

그림 7)에서 보듯이 학습자 말뭉치 중에서 텍스트 생성자인 학습자의 성별, 해당 언어, 학년 등을 고려하여 용례 추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어를 중심으로 좌우 어절 확장을 조절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현하는 용례추출기는 형태소 분석이 안 된 원시 말뭉치에서 추출하는 것이므로 한국어의 특성상 조사와 어미를 기준으로 용례를 추출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한국에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보완이 되며, 대만에서 구축한 말뭉치의 부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만에서의 전산 기반 한국어 교육의 과제

앞에서 소개한 온라인 교육은 현재 총 20 과를 목표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물론 아직도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교육학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대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내용 구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구축에 관련된 과제는 결론에서 간단히 정리하였다.

4.1 교육학 관점에서의 과제

1) 교수 내용

언어 교육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고르게 학습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발음, 어휘,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의 세 가지 문제를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현재 개발 중인 정치대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세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A.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교육의 균형성

이해하기 부분의 듣기와 읽기 영역의 교육을 위한 내용은 비교적 잘 준비되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내용 관련 각종 동영상과 설명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표현하기 부분의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상대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다. 말하기는 학습자가 제시된 동영상과 브라우저의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따라하는 정도이고 쓰기도 웹 기반 교육의 특성상 손으로 쓰는 학습보다는 객관식 문제의 답을 고르거나 간단한 표현을 자판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표현하기 부분은 실시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제한을 갖는다. 이 부분은 후에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도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반영한 내용 구성은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의 내용에 CMC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다.

B. 발음, 어휘, 문법 학습

기초적인 발음 교육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나,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한 발음 교육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 어휘와 문법 부분은 해당 과의 내용에 맞추어 설명이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학습한 어휘, 문법 학습 부분은 자가 테스트를 통해 학습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발음 부분에서 설명과 함께 학습자가 직접 발음한 것에 대한 확인은 현재로서는 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도 CMC 도구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극복이 가능하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발음, 어휘, 문법 학습은 각 내용을 독립적으로 모듈화하여 학습자가 언제든지 관련 내용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다.

C. 한국 문화 교육

이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내용을 만들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각종 문화적 특징을 본문 내용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제시할 것이다. 특히 한국 홍보 관련 사이트의 소개를 통해 학습자가 관련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개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문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특징도 포함할 것이다.

2) 교수 학습 활동

이 부분에서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는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원활한가, 학습을 지원하는 장치가 있는가,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 학습 목표 제시

전체 내용 구성에서 설정된 학습 목표는 본문 각 과별로 주제를 제시하면서 간단히 소개하고, 각 학습 영역별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B. 자기 주도적 학습

이번에 제작하고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구성에서는 기존의 일방형 강의식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순서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각 영역별 내용을 심도 있게 부문별로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휘, 발음, 문법 부분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모듈화할 것이다.

C. 학습 지원 장치 및 평가

학습을 도와주는 장치와 평가 부분에서는 현재 부분적인 것만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교육 화면 구성에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외국어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학습자가 쉽게 웹 화면상의 메뉴들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부문별로 간단한 안내 화면을 제시함으로써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평가는 Hot potatoes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와 쓰기 부분에서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실정이다.

3) 웹 기반 특성

이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과 차별되는 여러 특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멀티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각종 링크 기능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각 영역별 학습 내용을 모듈화하여 학습자가 언제든지 학습의 순서와 난이도를 조절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4) 사용자 환경

일차적으로 대만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은 대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인터넷 환경은 매우 양호하며 일반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4.2 기능성 강화 관점의 과제

1) 영역별 모듈화

기존의 원격 온라인 한국어 강의에서는 일반 수업 방식처럼 해당 과의 내용만이 화면에 제시되고 각 영역의 설명도 해당 과의 본문과 관련된 것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마다 관심과 이해도가 다를 수 있고, 학습을 하다가 전에 학습한 내용이나 후에 학습할 내용 중에서 특정 분야의 부분을 심화 학습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조사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자 하거나 지난 과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조사 부분만 다시 보고자 할 경우, 문법 영역 중에서 조사 부분만 선택해서 조사 부분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면 학습이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발음 영역, 어휘 영역, 상황별 표현(대화) 영역 등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각 영역을 범주화하고 하위 범주의 각 내용 설명 부분을 각각의 모듈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면 웹에서 효율적으로 각각의 모듈을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학습자는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웹의 내용을 구성할 때, 전체적인 내용의 설계와 범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범주화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의 특징도 살려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선 초급 학습자를 위해서 내용을 20 과로 구성한다면 20 과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별 목표와 내용의 범주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단계별 설명과 연계성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이런 점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

2) CMC 도구 활성화

컴퓨터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동시성을 갖는 것과 아닌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모두 웹상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기능을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사관리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인력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된다. 이런 현실적 한계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한종임(2006)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런 내용들을 현재 대만에서 자체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런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Hot Potatoes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임식 유사 의사소통 방식의 방법을 현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3) 현지 특성화

한국에서의 교육 방법이 대상 학습자의 측면에서 비교적 범용성을 갖는 데 반해, 대만 현지에서의 교육 방법에서는 현지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자기의 학습 환경이 반영된 교육 내용을 접한다면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관련 내용을 설명할 때 현지 언어와 학습 환경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설명한다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기 위해 대만 현지의 언어 특성(예를 들어 민남어의 입성과 한국어 받침 발음)이나 본문 내용 구성에서 대만 현지 정보 활용 등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만뿐만 아니라 중화권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4) 중고급 및 다양한 목적의 학습 연계

현재까지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초급자만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왔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급, 고급 한국어 교육도 염두에 두고 내용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되고, 심도 있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더욱 알찬 한국어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에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학적 용어 정리, 인터넷을 이용한 예문이나 정보 링크 기능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습을 위한 방법을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중고급 단계의 본문 내용은 일상 대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토론 등의 다양한 목적의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온라인 교육 이전에 많은 관련 연구가 있어야 하고 그 성과를 이용한 교재가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이 선결다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끄는 정도가 아닌, 매우 심도 있는 한국어 학습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대만에서의 전산 기반 한국어 교육에 대해 현행 온라인 교육 및 개발 중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매우 단순한 시스템의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온라인 교육 실현이 곧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이다. 현재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서 아직 전산적 구축 형식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즉 XML 형식의 마킹 표준안이나 자료 설명을 위한 헤더(Header) 부분의 형식 등이 아직 협의 중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기타 언어의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말뭉치는 대만에서만 아니라 한국에서 학습하고 있는 다양한 모국어 환경의 학습자들과 중국의 학습자들의 자료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병선(2009), "대만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31 차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38-153 쪽.
- 방성원(2005), "웹 기반 한국어 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6-3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84 쪽.
- 송현호(2004). "中國에서의 韓國學 연구 동향", 韓國文化 3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10-330 쪽.
- 안은희(2006), "다언어 학습 시스템을 통한 웹 기반 한국어 프로그램-동경외국대학 [TUFS 언어모듈]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7-2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7-181 쪽.
- 채련강(2003),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안" 韓國(朝鮮)語 教育研究 창간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7-21 쪽.
- 최성욱(2000), "웹기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한종임(2006),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CMC 와 웹기반 학습저작도구 활용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6 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33-147 쪽.

박병선(朴炳善)

臺灣 臺北市 文山區 指南路 2 段 64 號 國立政治大學 韓國語系 11605

전화번호: +886 (0)2 2939-3091(ext: 88091)

전자우편: bpark@nccu.edu.tw